광주·전남 상생 1호 반도체 특화단지 잰걸음

삼성전자·GIST, 반도체학과 신설
매년 30명 선발·지원…입사 보장
국회선 입법지원 토론회도 개최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8기 상생 1호 사업으로 추진중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관련 학과가 신설되고, 국회 차원에서 입법지원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 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광주시는 27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관에서 강기정 시장, 이형석·양향자 국회의원, 송재혁·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박래길 GIST 총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GIST-삼성전자 반도체공학과(계약학과) 신설'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정부와 광주시, 기업, 대학은 신설 학위과정을 협의해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GIST는 내년 1학기부터 반도체공학과 계약학과를 신설해 매년 30명을 선발하고, 학생들은 공정 중심의 교과과정을 배우고 졸업 후에는 삼성전자 입사가 보장된다.

박래길 총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균형 발전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GIST의 우수한 교육·연구 자원과 삼성전자의 세계적 기술력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은 "반도체 공정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한데, 광주를 거점으로 우수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균형발전 뿐 아니라 반도체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기업과 대학 간 계약학과가 생길 때마다 아쉬움이 컸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계약학과가 생겼고, 지역 인재 성장의 여망이 현실화 됐다"며 "여러 교육기관과 협력하고, 광주 인공지능(AI) 영재고 등 인재 양성 사다리를 완성하는 일에 멈춤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국회도 발벗고 나섰다. 이날 GIST에서는 협약식과 별개로 국회 법제실과 양향자 의원실 공동으로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산업과 상생 1호 협력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이 '에너지 반도체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이 '국내외 반도체 동향과 인공지능'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 국회법제실 법제관과 산업통상자원부·반도체산업협회·광주시·전남도 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석, 정책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양향자 의원은 "광주·전남은 입지 환경, 풍부한 전력과 용수는 물론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나주 혁신산단 등의 기반과 GIST, 에너지공대 등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집중돼 있다"국가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실과 양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률 제·개정안 입안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길용현 기자

지식정보문화 10개 기업
전남도와 투자협약 체결
2026년까지 129억 투입

전남도는 27일 신규 창업하거나 전남지역으로 이전한 지식정보문화 10개 기업과 서면 투자협약을 진행했다. 나주와 목포, 순천에 들어선 10개 기업은 2026년까지 총 129억원을 투자해 청년 일자리 183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에 둥지를 튼 ㈜온소프트, ㈜PTW코리아, ㈜눈보라엔터테인먼트, ㈜에스엠소프트, ㈜비알이디, ㈜의성 등 6개 기업은 협약에 따라 61억원을 투자해 118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 지역 특화 비즈니스 모델 정착과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엑스플랜트, ㈜에이오코리아, ㈜크레펀 등 3개 기업은 목포에 53억원을 투자해 59명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응용·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과 모바일 게임 서비스, 실감형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로컬앤컴퍼니는 순천에 15억원을 투자해 지역 특화 영상 및 문화콘텐츠 개발에 집중한다. 오는 4월 1일 개막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에 관련 콘텐츠 기획과 상품 제작 유통에 나선다.

전남도는 앞선 민선 7기 당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성장 동력인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에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비전 아래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식정보문화산업 분야 보조금을 신설했다. /정근산 기자

화순 삼천지구 토지거래 허가
도, 2025년 3월 27일까지

전남도는 27일 "화순 강정·삼천리 일원 삼천지구 0.826㎢(704필지)에 대해 2025년 3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화순읍 시가지와 연접해 개발 가능성이 높고,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부동산 투기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많은 곳이다.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선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반드시 화순군수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순군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불이행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정근산 기자

전남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전남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떠돌거나 방치' 전남 문화예술품 관리부실

▶1면에서 계속

하지만, 수리채와 함께 지어진 옛 전남지사 한옥 관사 '어진누리'가 활용성 저조로 매각되는 등 수리채의 추후 매각 가능성도 여전해 유물들이 또다시 옮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막대한 혈세를 들인 옛 지사 공관을 유물 전시 등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비교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 학술자료와 참고자료들의 폐기처분도 쉽지 않아 출토 유물들의 떠돌이 신세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전남문화재단 관계자는 "폐기 처분할 자료들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문화재청에 보고 후 출토된 위치에 다시 매립해야 한다"며 "하지만 공사 전 출토된 유물들을 공사가 끝난 후 폐기하기 위해 방문하면 해당 위치가 건물로 바뀌거나 위치를 찾기 어려워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도청내 수장고에서 관리중인 작품들도 찢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가 청사 수장고를 확인한 결과, 수장고는 예술품을 보관하는 장소라기보다 일반적인 창고 수준에 불과했다. 항온항습기 1대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바로 옆에 보관중인 그림마저도 이곳저곳 곰팡이가 피는 등 대다수 작품들이 이미 색깔이 바래 본래 모습을 상실한지 오래였다. 병풍으로 보이는 작품 역시 한지가 모두 찢어져 너덜너덜한 채 보관돼 예술작품으로 보기 민망할 정도였다.

현재 전남도는 청사 3층 수장고에 보관중인 작품 97점을 비롯, 총 311점(전시 207점, 대여 7점)의 문화예술품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화 103점, 서양화 42점, 서예 81점, 도자기 17점, 사진 27점, 판화 15점, 공예품 7점, 기타 19점 등이다.

전남도가 전시하거나 수장고에 보관중인 작품 중에는 2012년에 구입한 오승우 화백의 한국화 '남촌풍경' 등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작품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작품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인 도립미술관과 협의 중이다"며 "가치있고 예술성 있는 작품은 도립미술관으로 관리 전환 후 전시 또는 수장고에 보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사진)을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우 신임 본부장은 29일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하며 시작한 국수본부장 공석 사태가 30일 만에 일단락됐다.

우 신임 본부장은 일선 수사부서 경험을 두루 갖춘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경찰 내부에서 수사 기획력은 물론 뛰어난 리더십과 온화한 포용력을 갖춘 '덕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한 우 본부장은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서울=강병운 기자